

<서평>

## 제주도 가족의 포괄적인 이해 지침서

- 이창기의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1999, 영남대학교출판부),  
김혜숙의 『제주도 가족과 켄당』(1999, 제주대학교출판부) -

권 귀 숙\*

이창기 교수의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과 김혜숙 교수의 『제주도의 가족과 켄당』은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제도의 특징을 밝혀 보려는 연구들이다. 이 두 저서들은 두 교수가 오랫동안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표해 온 글들을 엮은 것이다. 인구와 가족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시점에서 이 저서들은 제주도 가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창기 교수의 저서는 진지한 학문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끊임없이 연관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선 부족하고 정확치 않은 인구 자료들을 꼼꼼히 검증한 후, 국세자료를 중심으로 1955-1995년 동안의 제주도 인구 성장(1장), 인구구성(2장) 및 인구이동(3장) 상황을 추정하여 보여준다. 인구학의 자료 및 분석이 제주학의 기초임을 미루어 볼 때 이 연구들은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가구의 크기와 구성(4, 5장)상의 특징을 잡아낸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제주도의 인구와 가구상에 드러나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다. 전국 평균에 비하여 노인이 장수하고, 여성이 많으며, 가구의 크기가 적고, 직계가족의 비율이 낮으며,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현상 등은 단지 자연발생적이거나, 주변문화의 하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거나, 도서성으로부터 기인하기보다는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어서 이 교수는 상세한 사례보고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가족”과 다른 제주도의 제사분할 관행, 지역간의 차이, 제사분할과 연관된 상속분할 등을 정리하면서 왜 이러한 특징이 제주도에 존재하게 되었나를 질문한다(6장). 조선 초, 중엽의 윤희봉사의 잔존으로 가설을 세운 이 교수는 다음 단계로 19세기의 호적중초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점검한다(7장). 엄밀한 검사로 처의 가계까지 추적하면서 19세기에도 보편적이었던 장남분가, 소인수 가족, 빈번한 축첩, 촌락내혼 현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 교수는 제주도 가족의 특징을 종합하면서 이 특징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분석틀을 연구한다(8장). 이 교수는 제주도 가족의 특징으로써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 볼 수 있는 조상숭배, 조상제사, 남아선호사상 등의 “부계적 원리”와 장남분가, 균분상속, 제사분할,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등의 “비부계적 원리”의 공존을 들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이원적 구성원리는 적응과 초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적응 전략과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해야 하는 초월의 메커니즘으로 제주도 가족의 특징을 읽어 나간다. 마지막 장(9장)에서 제주도의 가족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기존 연구들을 재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준다.

이 교수의 저서가 물론 많은 사실과 다각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가족의 특징을 “한국의 전통가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잡아내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전통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주도 가족과 비교가능한 단위인가? 비교의 기준을 제주도처럼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으로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과제는 “제주도 가족제도의 형성 배경”이 되는 적응과 초월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가족제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 기능론의 함정에 빠질 우려를 남긴다. 왜 적응과 초월의 결과로 비부계적 특성과 부계적 특성의 공존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나야 하는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앞서 시도한 시각은(역사적 경험과의 상호작용)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창기 교수의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은 이러한 약간의 의문을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사실상 큰 업적이다. 후학의 모범이 될 학문적 자세, 역사성을 고려한 시각, 제주도 인구 자료의 정리 및 분석, 제주도 가족제도 특징 분석, 가족형성 배경의 분석틀 정립 등 다방면으로 제주의 가족학뿐만 아니라 제주학 전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교수의 저서에 이어 출간된 김혜숙 교수의 『제주도 가족과 권당』은 가족과 친족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교수의 글이 가족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김 교수의 글은 가족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수의 글에서 볼 수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 부부간 의사결정권(1, 2장), 고부관계(3장), 가족유형(4장), 가족의식(5장), 혼인연구(6,7장), 혼인의례(8장), 사후혼(9장), 분가(10장), 이혼(11장), 재혼(12장), 첩제(13장), 통혼권(14장), 친족용어(15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한다.

김 교수는 먼저 1980-1990년대 초기 동안 실시했던 사회조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제주 가족의 특수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작업과정에서 김 교수는 한 주제에 대한 오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두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포함한 방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제주도 가족이 “전통가족”과 상당히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전형적인 가족은 전통가족과 달리 부부가족이며, 부부간 의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제주도 고부관계는 전통가족과 비교해 볼 때, 불만강도가 대단히 낮은 데 제주도의 핵가족과 분가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가족유형에서도 1인 가족의 비율이 높은 등 제주가족의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제주여성의 의식 자체가 독립적이며 근면하고 개인 의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 교수의 설명과 앞서 소개한 이 교수의 설명과 다른 점이 흥미로운 데, 이 교수는 그 이유

를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의 누적에서 찾으려고 한 점이다.

김 교수는 이어서 “청수리”, “고내리” 두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구식 혼인 의례, 사후혼, 혼인후 분가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많은 사례를 통하여 전형적인 의례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분가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김 교수는 방대한 조사 연구 결과, 혼인과 가족의 특징으로써 실생활에서는 개인중심, 모중심이지만, 의례에서는 집단중심, 부계중심임을 거듭 확인한다. 제주 특수성에 대한 김 교수의 관심은 이혼, 재혼, 축첩으로 연결되는 데,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개인중심적인 첩제는 자의식 강한 제주 여성, 생계 유지에 대한 자신감, 철저한 독립심 등이 그 배경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저서의 새로운 시도는 ‘켄당’에 관한 연구이다. 김 교수는 촌락내혼으로 인한 “부찌사돈”을 소개하면서 “성펜 켄당”과 “웨펜 켄당”, “치 켄당”, “시 켄당”의 복잡한 친족구조를 알려준다. 더불어 구세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친족 용어들을 도표로 만들어 가며 자세히 보고한다. 세대별 구별이 뚜렷하고 친가, 외가간의 호칭상 차별이 없는 제주도의 친족 용어들을 통하여 제주도 친족간의 평등성을 확인한다.

김 교수의 저서는 무엇보다 가족에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주제를 실증적으로 다룬 점이 큰 업적이다. 기존의 글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족 연구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다양한 주제 하의 경험적 조사 결과는 제주도 가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이 글을 통해서 구식혼례의 과정, 복잡한 켄당 구조 및 용어들, 이혼과 재혼의 다양성, 주택 구조와 분가형태 등 제주도의 가족제도에 관련된 수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켄당’에 관한 연구가 책제목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앞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제주도 가족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김 교수의 시각은 제주도의 가족과 육지의 전통가족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반면 연구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있다. 즉 그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가족은 다르다라는 본질론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실생활은 모 중심, 의례는 부계중심이라는 가족원리에 거의 제한시킨 점이나, 그 배경 요인으로써 제주 여성의 독특한 기질을 들고 있는 점이다. 주제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보거나, 모순적인 연구 결과들이 또 다른 가족원리를 반영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김혜숙 교수의 『제주도 가족과 권당』은 시각과 해석상에 있어서 일부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창기 교수의 저서와 더불어 제주 가족의 이해에 필수적인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교수의 저서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제도의 특징을 밝힌 글이라면, 김 교수의 저서는 방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가족에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를 치밀하게 다룬 글이다. 따라서 두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제주 가족을 보다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두 저서는 제주도 가족에 관심 있는 후학들의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남을 것이다.